# 中, 가뭄으로 다시금 세상 나툰 마애불

**양쯔강, 150년만의 최저수위**
**암초 새겨진 불상 출현 화제**
**600년 전 지장보살 벽감도**
**조난자 위령 위해 조성 추정**

박영빈 객원기자

계속되는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이 중국대륙을 덮쳤다. 중국의 젖줄이라 불리는 양쯔강도 150년 만에 최저수위를 기록하면서 강물 속에 잠겨있던 마애불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월 18일 홍콩의 '이코노믹 타임즈'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마애불의 소식을 상세보도했다.

마애불은 양쯔강 충칭구간 바난(巴南)지구에 있는 암초인 포예량도(佛爺梁島)에서 발견됐다. 암초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서쪽바위에 조각된 마애불은 중앙의 지장보살을 모신 벽감을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벽감에 각각 도교의 신상으로 추정되는 신상이 조각된 삼존불이다. 세 불상 모두 보존상태가 양호해 학술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낮아진 수위로 다시금 세상에 나타난 마애삼존불. 사진출처=신화통신

현지 소식통들은 "포예량도 암초는 1년 내내 강물에 잠겨 있으며 간혹 머리 부분만 수면에 돌출되곤 했다. 오래전부터 현지에선 바위에 부처님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기에 포예량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은 "현재 충칭에서만 51개의 강이 흐르지 않고, 24개의 저수지가 고갈된 심각한 가뭄"이라며 불상이 완전히 노출된 연유를 전했다.

불상을 직접 조사한 충칭 문화유적 고고학연구소의 니우잉빈 부연구원은 "중앙 벽감은 높이 1.4m, 너비 약 1m로 안에 높이 1m 가량의 지장보살상이 부조로 봉안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연화좌 위에 결과부좌로 앉았으며 선정인을 한 모습이다. 좌우의 작은 벽감에는 의자에 앉은 형태의 신상이 각각 봉안되어 있는데 관을 쓰고 소매가 긴 옷을 입은 모습이다. 중앙의 불상보다 조각이 조악하며, 오른쪽 벽감의 경우 특히 청대 조각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또 니우잉빈은 "여러 점에서 보았을 때 중앙의 지장보살은 600여 년 전 명대의 지장보살이고, 좌우의 신상은 청대에 추가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좌우 신상은 당시 도교나 민간신앙이 결합된 도상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마애삼존의 보고를 받은 전문가들은 "이 일대에는 암초와 소용돌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난파선이 자주 발생했을 것이다.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조성한 것은 아마도 사고를 당한 선박과 조난자들을 위령하고, 오가는 선박의 안전과 항로를 안내하기 위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美, 캄보디아에 약탈 유물 반환 결정

**내전 시 광범위 약탈물 30점**
**10세기 전 제작 청동 불상 등**

지난 8월 14일 해외 주요 언론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은 미국의 캄보디아 약탈 유물 반환 결정 소식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1000년 전 제작한 청동불상, 힌두교 석상을 포함한 약탈 유물 30점을 캄보디아로 반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코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고고학 유적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의 내전으로 광범위한 약탈을 겪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이후 국제시장에서 판매된 약탈 유물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맨해튼 연방검찰청장 데미안 윌리엄스는 "반환이 결정된 대부분의 문화재는 태국 방콕에서 활동하는 장물아비 더글러스 래치포드가 서방 수집가들에게 판매한 것"이라면서 "더글러스는 해당 문화재가 약탈 및 밀수품임을 감추기 위해 위조문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장물아비 더글러스 래치포드는 태국과 영국 이중국적자로 2019년 금융사기 및 밀수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2020년 태국에서 사망했다.


캄보디아 유물 반환 발표에서 미 검찰이 압수한 캄보디아 유물 30점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미 검찰이 더글라스를 대상으로 민사 몰수 청구를 제기하자 그와 거래한 미국 박물관과 개인 수집가들이 소유권을 포기했다. 소유권을 포기한 유물 중에는 1000년 전 제작한 청동 불상과 힌두교 전쟁과 승리의 신 스칸다가 공작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10세기 사암(砂巖) 조각상 등이 있었다. 관계자는 "이 조각상들과 유물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매우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로 반환 예정인 약탈 문화재는 청동기시대부터 12세기까지 사암과 청동 조각품, 공예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굴꾼에 의해 캄보디아로부터 불법 반출되어 허위 진술 및 위조 서류를 바탕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을 통과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뉴욕의 국토 안보 조사 특별 요원 리키 파텔은 "이 유물들이 비범한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이라고 극찬하며 "우리가 반환하는 유물들은 캄보디아에서 약탈한 것이다. 오늘 발표한 유물뿐만 아니라 각국의 신성한 유물들은 무형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경을 넘어 밀반입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팔려나간다"라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미국 대사 키오 체아는 "본국으로 반환되는 이 유물들은 프놈펜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반환은 캄보디아의 문화에 담긴 혼을 캄보디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반환을 결정한 미국 정부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물 반환을 위해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나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유물 약탈과 본국 반환 문제를 꼬집으며 "꾸준히 발생하는 각국의 귀중한 예술작품과 유물의 약탈을 막기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하며 국가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방검찰은 2014년 약탈당한 10세기 사암 조각품인 두료다나(힌두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주요 등장인물)를 경매 회사 소더비스와 합의해 캄보디아로 반환했으며 지난해 맨해튼 지방검찰청에서는 약탈 유물 27점을 캄보디아로 반환했다. 이외에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10세기 석상과 13세기 목조 불상을 네팔에 반환하기도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달라이라마, 라다크 여행 연장

**라다크 주민 간원과 이상기후 영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원거리 방문으로 라다크를 선택한 달라이라마가 오는 9월까지 라다크에 머물 수 있다는 징후를 내비쳤다. 지난 8월 14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달라이라마가 여러 이유로 예정했던 기간보다 오래 라다크에 머물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15일, 팬데믹 사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도 북부 라다크를 방문한 달라이라마는 현지 불자와 주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라다크 불교협회의 툽텐 체왕 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고령의 연세와 코로나 확산의 위험에 따라 최대한 외부일정을 자제해 주시길 이미 요청했고, 달라이라마께서 라다크에서 편안히 머무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라다크 주민들은 종교와 성별, 나이를 떠나 달라이라마를 열렬하게 환영했다. 달라이라마를 친견하러 몰려든 인파와 이들을 위해 천천히 이동한 달라이라마 일행은 차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거의 90분에 걸쳐 숙소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현재 라다크에 머물고 있는 달라이라마는 지난 7월 28일 대중법문을 가졌으며 6만 1000명의 대중이 모여 법문을 들었다. 이후 현지의 도서관과 학교를 방문하고, 8월 12일부터 나흘간 오지인 잔스카르의 학생들과 대담을 가지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스카르와 파둠 등의 사원들을 방문했다.

달라이라마는 8월 말에 다시 본래의 주석처인 다람살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라다크 주민들의 간원과 폭우가 이어지는 다람살라의 이상기후로 한동안 라다크에 머무는 것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현재 달라이라마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한 채, 휴양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라다크 방문 중 대중연설에서 "라다크와 잔스카르의 사람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난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는 달라마라마는 펜데믹 이전까지는 매년 한차례 이상 라다크를 방문했다.

한편 달라이라마의 라다크 방문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있는 잔스카르 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말레이시아, 독립일 기념 종교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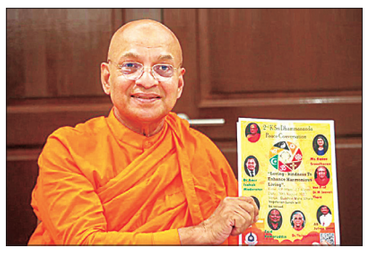
**다양한 불교종파 불자 참여**
**팔리어 예불 · 축원도 이어져**

지난 8월 17일 말레이시아 언론 '더 선 데일리'는 말레이시아 불교 사원의 종교 포럼 개최 소식을 전했다.

말레이시아불교사원(BMV)은 말레이시아의 제 65회 독립기념일을 기념하여 '조화로운 삶을 위한 자비심'을 주제로 8월 20일 종교 포럼을 개최했다.

종교 포럼에는 하윈더 싱 박사, 자이드 카마루딘 박사, 시발리 시라 명예교수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들이 참석했다.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 밀교 등 모든 종파 불자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불교 사원의 명예 비서 '틸락 레슬리 자야와르데나'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예불, 축원, 추모 법회, 안과 검진 의료 봉사를 진행했다"면서 "포럼에 동참한 불자와 국가의 축복을 위한 특별한 팔리어 예불과 축원이 이


종교 포럼을 알리는 말레이시아 불교 종정 스리 담마라타나 스님. 사진출처=더 선 데일리

번 포럼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사원의 특별한 축원은 196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말레이시아 국가와 국민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평한 방식으로 통치하길 바라는 내용과 왕을 비롯한 각국의 통치자가 보호되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락 비서는 "법회 축원문에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국무 총리, 그리고 내각 구성원이 지혜와 자비, 이해로 국가와 국민을 관리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 불교 사원 입적 고승들을 위한 추모 법회도 열렸다. 김민재 객원기자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를 검색하시면 상세 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02·720·9600 maumtour.com

한국인을 위한 2022년도 항공좌석 관계로 9월 20일 마감입니다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자비심의 가르침을 생생히 보여주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문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2일간 인도 북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왕궁 앞에 있는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법회장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최 | 여수 석천사 진옥(061-662-1607)
문의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법회 동참 일정 (상세한 일정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A 팀 달라이라마 법문 8일(11월 22일 출발 -29일 도착)
(동참금 2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11월 22일 인천-델리-암리차르 / 23일 암리차르-황금사원-다람살라 / 24일 다람살라 네충사원,정부청사, 박물관,링린포체 친견예정 / 25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6일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 27일 다람살라-행복한계곡 따시종-캄툴린포체 사리탑 기도-찬디가르 / 28일 찬디가르-델리 / 29일 인천공항 도착

B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남인도 순례 11일(11월 19일 출발 - 29일 도착)
(동참금 30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세계 최고의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불교 최고의 아름다운 불탑인 산치대탑 등 순례

C 팀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성지순례 15일(11월 22일 출발 - 12월 6일 도착)
(동참금 359만원-보시금 30만원 등 일체경비 포함)
달라이라마 법문 및 인도 불교 7대 성지순례-기원정사-카필라성-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나란다 대학-영축산-보드가야-바라나시

